

마을기업 맞춤형 지원 탄력

임실군,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3곳 선정... 제품개발·홍보·판로 지원 등 추진

임실군이 지역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맞춤형 지원사업 국비 확보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3곳이 선정돼 국·도비 2600만원을 확보했다.

마을기업이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 참여형 경제활동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마을기업들의 공동체성과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발표했다.

임실군에서는 이번 공모에 △신규 1개소 △고도화 2개소 등 총 3개 마을기업이 선정됐다.



사진 왼쪽부터 임실삼삼오오청춘햇살, 임실레드팜영농조합법인, 섬진강다슬기마을.

신규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 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마을기업으로 '임실삼삼오오청춘햇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카페·베이커리 운영)이 선정됐다. 또한 고도화 사업에는 '임실레드팜영농조합법인' (토마토 원물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섬진강다슬기마을' (다슬기 가공품 생산) 등 2개 마을기업이 선정됐다.

고도화 사업은 운영 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국비 2,000

만원과 도비 600만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추가로 군비를 투입해 선정된 마을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 홍보·판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에 반가운 소식이고, 마을기업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아 성공의 꽃을 피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을기업에 일자리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더 성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순창군, 4년 연속 암 관리·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순창군이 전북도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포상받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1일 제18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2024년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북 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북지역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평가로 도내 14개 시·

군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수검률 및 암 관리 사업 홍보, 우수사례 발굴 등 항목을 평가했으며, 순창군의 경우 2021년 최우수기관, 2022년·2023년 우수기관에 이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의 암 검진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해 보건기관 28개소에 대변통을 상시 비치하고 암 검진 완료자에게 홍보 물품을

배부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들러, 1:1 맞춤형 전화와 암 검진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협력해 출장 검진을 시행하는 등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밖에도 군민 무료 검진과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암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순창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

순창군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도비 8,89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은 순창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군은 확보한 사업비를 활용해 창업을 꿈꾸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면 전북자치도가 심사 후 선정해 총사업비의 90%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순창군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리브인순창(Live in Sunchang)'을 제안해 선정됐다.

이 사업은 4대보험 미가입자 및 개인 사업장 비소유자를 대상으로 창업 기초·심화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총 7명에게 4,700만원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순창군의 관광자원과 특산물 등 자연·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귀농·귀촌과 생활 인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군민들의 수요가 많았던 창업 교육을 충족하고,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창업·창직 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은 3~4월 중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063-660-13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지난 20일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2층 다목적강당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환영식'을 개최했다.

순창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환영식 개최

순창군이 지난 20일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2층 다목적강당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김성철 순창농협 조합장, 지역 농업관계자 등이 참석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올해 순창군에서 선발한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라오스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40명으로, 이들은 8개월간 지역 내 농가에서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선발된 근로자들은 지난 2월 라오스 현지에서 엄격한 면접 과정을 거쳐 채용됐으며, 국내 입국 후에도 기초 안전교육과 농업 실습을 이수하며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근로자들은 지역 농가에서 작물의 재배와 수확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일

지역 소식 통

남원시, 춘향제 임시 차박 공간 운영

남원시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 동안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 라는 주제로 개최할 95회 춘향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임시 차박 공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94회 춘향제가 역대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며 글로벌 축제로서 성공적으로 입지를 다진 가운데, 매년 부족한 숙박 문제에 대응해 임시 차박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차박 공간은 모두 시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곳으로, 교통반 국민관광지, 종합스포츠타운, 합과우 소리체험관, 요천생태공원, 금암공원 근처 공터, 유채꽃밭 근처 공터 총 6곳이며 일반 승용차량과 카라반, 캠핑카를 포함해 모두 340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정식 취사 이용시설과 샤워시설을 갖추지 못했지만, 화장실 개방과 필요시 임시 화장실의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이용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들은 춘향제 홈페이지에서 임시 차박 공간의 위치와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24일 18시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경찰서, 금은방 강·절도 예방 나서

순창경찰서(서장 이정호)는 금값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최근 도내에서도 금은방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대 젊은 층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응대하는 등 최근 사례에 대한 설명과 순창경찰서 자체 사책인 '우리동네 안심공조망'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읍내를 관할하는 순화파출소에서는 탄력순찰과 합동순찰로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 중이다.

이정호 순창경찰서장은 "관내 금은방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과 꼼꼼한 순찰로 주민이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국가 암 검진사업 우수상 수상

남원시는 2025년 제 18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21일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암 검진사업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암 예방사업 등 7개 분야에서 공모로 접수해 1차 시·도(지역암센터)·국립암센터에서 분야별 2편 이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2차 국립암센터에서 외부 평가위원회가 심사, 최종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암검진사업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남원시가 연령별·암종

별 맞춤 검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성과가 반영되었으며, 특히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연령별·암종별 유형에 따른 맞춤형 검진 안내로 수검률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최경식 시장의 높은 관심으로 각 지역 읍·면·동장에게 취약계층 건강검진 직접 관리를 당부한 점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지역 책임제'를 운영, 검진 밀착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검진 참여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취약계층이 건강검



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보건소는 검진 연령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각 세대에 맞춘 적절한 채널과 홍보 방식을 선택하여 맞춤형 검진 홍보로 검진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특히 상반기에 집중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우편 및 문자·전화로 개별 수시 안내하여 상반기 검진 참여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인정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